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579>

JCCT 2023-5-65

스토킹 관련 언론기사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분석

Text Network Analysis o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지은선*, 정상희**

Eun-Sun Ji*, Sang-Hee Jeo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토킹, 언론기사, 텍스트네트워크분석, 보수언론, 진보언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eywords within stalking-related news articles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through the text network analysis, and then to examine the implicit intentions. Selecting total 1,607 articles including 824 articles of the conservative press(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783 articles of the progressive press(The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22, this study explored the aspect of topic category drawn through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based on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mon topics of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ress were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gender-based violence, personal protection & intensity of punishment, and disclosure of stalkers'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topics differently shown in those two press, the conservative press showed stalkers' harmful act, and outline of 'murder case at Sindang Station' while the progressive press showed request for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murder case at Sindang Station', and eradication of sexual exploitation crime (in cyber spa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re are changes in the type of reporting according to ideological opinions about stalking in news articles.

Key words : Stalking, Newspapers as Topic, Data Mining, Conservative Press, Progressive Press

*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참여저자)

**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4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2일

Received: April 25, 2023 / Revised: May 9, 2023

Accepted: May 12, 2023

**Corresponding Author: jshwater79@gmail.com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Cheongju, Korea

I. 서론

스토킹(stalking)은 오랫동안 사회에 존재해왔으며 스토킹행위가 중대한 피해로 진화되고 피해보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중에게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1]. 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의사소통 상 불일치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두려움과 공포를 반복하는 주기적인 행위를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2].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보도의 공통점은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범죄이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단 것이다[2,3]. 이는 스토킹 행위가 성역할 고정관념 태도를 반영한 여성에 관한 잘못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혐오에 기인한 극단적인 형태인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로 발전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2].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와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고, 특정한 행위로 정형화하기 쉽지 않아 적용범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2,5]. 또한 피해자보호조치가 법제화 되었으나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2,3]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신변보호조치 강화, 강력한 처벌규정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3,6]. 스토킹 범위가 대면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전파성, 익명성, 시공간 무제약 등)을 고려한 법적 규정이 미약하여 처벌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8].

스토킹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회 주요쟁점이나 실제 스토킹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학문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2,5,9,10]. 이 연구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초기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실효적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 추가, 피

해자보호명령제도, 반사의사불법죄 규정 삭제, 피해자 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스토킹 관련 처벌대상자의 행위범위, 스토킹 범죄유형, 가해자의 동기 및 특성 등을 유형화하여 현실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은 법학적 소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사회적으로 대중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어떠한 언어와 표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인지변화, 사회적 문제의 의미 구성을 보여주는 장치이다[11]. 이는 언론기사가 정책적 입장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면 대중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12,13]. 언론의 스토킹에 관한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토킹 언론기사를 토대로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은 비정형적인 언론기사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특정문서와 동시출현 단어를 확인하여 의미 있는 군집들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파악하여 언론에서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14] 본 연구에서 스토킹에 관한 언론 간의 주제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비교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목적

본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토대로 언론기사의 핵심 단어들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의미를 해석하고 스토킹에 대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함의를 비교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BIG KINDS(www.bigkinds.or.kr)는 1990년부터 54개의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빅데이터화 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보수언론기사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를 검색하여 총 2,699건 추출하였다. 상세 검색 방식으로 검색유형은 “뉴스”, 검색어 범위는 “형태소 분석”과“전체”, 키워드는“스토

킹”, “지속적 괴롭힘”,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색하였다. 제외된 기사는 동정, 인사, 행사, 책 소개, 광고 등을 제외한 보수언론기사824건과 진보언론기사 783건으로 총 1,607건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텍스트데이터는 신문기사일자, 신문사, 본문 순으로 MS Office 엑셀을 활용하여 목록화하였다. 데이터 처리는 네트워크 분석프로그램 NetMiner4.0(Cyram Inc. Seoul,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작업으로 한글텍스트를 형태소분석(morphological analysis)하였다[14]. 유의어(thesaurus)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지정하는 작업이며, 제외어(exception word)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처럼 추출되지 않도록 제외하고자 하는 단어목록화 하였고, 지정어(Defined Words)은 고유한 단어(복합명사, 고유명사)을 있는 그대로 추출하여 지정하였다[14,15]. 이후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등을 등록하여 추출된(명사형)단어들을 정제하였다[14].

언론기사의 주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빈도(TF)와 단어가 가진 역문서의 빈도(IDF)를 곱한 값으로 단어 가중치 기법인 TF-IDF(Tea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을 적용하였다[16,17].

본 연구에서는 언론기사 텍스트 문서집합에서 숨겨진 의미 있는 단어들을(토픽) 추출하여 군집화하는 과정으로 확률분포로 추정할 수 있는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기법을 사용하였다 [15]. 주제별 분류에 맞는 토픽 수를 5개로 설정하고 MCMC > alpha 10, beta 0.1, no of iteration=1,000으로 분석하여 의미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단어 2 모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18].

IV. 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키워드 빈도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특정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단어출현빈도와 TF-IDF 결과를 통해 상위 10개의 핵심 단어를 제시하였다. 보수언론기사 824개에서 단어 9,211개, 진보언론기사 783개에서 9,848개를 추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보수언론

에서 피해자, ‘신속한 수사’, ‘페미사이드’, ‘가해자’, ‘친밀한 관계’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고 진보언론은 ‘범죄행위’, ‘페미사이드’, ‘맞춤지원’, ‘제도개선’, ‘대중매체’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TF-IDF값 순에서 추출된 상위 10개 키워드 중 보수언론은 ‘페미사이드’, ‘가해자’, ‘친밀한 관계’, ‘지하철’, ‘가중처벌’ 등의 순으로 높았고, 진보언론은 ‘지하철’, ‘대중매체’, ‘친밀한 관계’, ‘맞춤지원’, ‘처벌법’ 등의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표 1).

표 1. 단어출현빈도 및 TF-IDF별 상위 10개 키워드
 Table 1. Top 10 Keywords by Frequency and TF-IDF

NO	보수언론			
	Frequency	횟수	TF-IDF	횟수
1	피해자	2,442	페미사이드	508
2	신속한 수사	2,424	가해자	504
3	페미사이드	1,714	친밀한 관계	380
4	가해자	1,508	지하철	312
5	친밀한 관계	885	가중처벌	306
6	지하철	752	대중매체	304
7	SNS	744	SNS	298
8	가중처벌	725	처벌법	269
9	맞춤지원	651	배심감	260
10	대중매체	617	맞춤지원	258

NO	진보언론			
	Frequency	횟수	TF-IDF	횟수
1	범죄행위	2,093	지하철	364
2	페미사이드	1,908	대중매체	349
3	맞춤지원	1,133	친밀한 관계	343
4	제도개선	1,038	맞춤지원	331
5	대중매체	1,026	처벌법	324
6	지하철	987	제도개선	321
7	성폭력	967	가중처벌	273
8	친밀한 관계	944	성폭력	269
9	여성가족부	939	가이드라인	268
10	SNS	879	SNS	263

2. 토픽 분석

보도 경향에 따라 스토킹과 관련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가 5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보수언론은 Topic 1의 키워드로 ‘페미사이드’, ‘가중처벌’, ‘김태현’, ‘신체적

폭력', '친밀한 관계' 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보도가 가해자의 범행 심리, 스토킹행위에 초점을 둔 사건흐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 토픽 명을 '스토커의 가해행위'로 명명되었다. Topic 2의 키워드는 '제도개선', '성폭행', '사회적 약자', '불안감', '성폭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며 '젠더폭력의 인식개선'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성범죄의 핵심이 성차별적 인식으로 초래된 것으로, 구조적 차별을 개인문제로 원인을 돌려 성적 대상화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Topic 3의 키워드는 '피해자', '가해자', '맞춤지원', '처벌법', '미약한 처벌' 등으로 토픽 명을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로 명명하였다. 스토킹 피해자의 실질적인 신변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정비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Topic 4의 키워드는 '신속한 수사', '지하철', '전주환', '공중화장실', '배신감' 등이 등장하였고 가해자의 개인 신상이나 범죄행적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로 명명하였다. Topic 5의 키워드는 'SNS', '대중매체', '영상물', '친밀한 관계', '신상 공개' 등이 등장하여 여론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가능성,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한 흉악범죄자의 실질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이 토픽 명을 '스토커 신상공개'로 명명하였다(표 2, 그림 1). 보수 언론의 Topic 1은 24%, Topic 2은 17%, Topic 3은 22%, Topic 4은 23%, Topic 5는 14%로 토픽 비중을 제시하였고 Topic 4가 큰 비중을 차지해 가장 강조되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표 2. 보수언론의 토픽모델링 결과

Table 2. Results of topic modeling of the conservative press

NO	Topic group	1stKey word	2nd Keyword	3rdKey word	4thKey word	5thKey word
1	스토커의 가해행위	페미사이드	가중처벌	김태현	신체적 폭력	친밀한 관계
2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제도개선	성폭행	사회적 약자	불안감	성폭력
3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피해자	가해자	맞춤지원	처벌법	미약한 처벌
4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	신속한 수사	지하철	전주환	공중화장실	배신감
5	스토커 신상공개	SNS	대중매체	영상물	친밀한 관계	신상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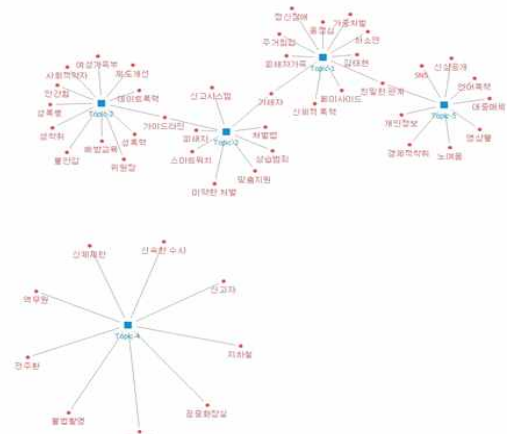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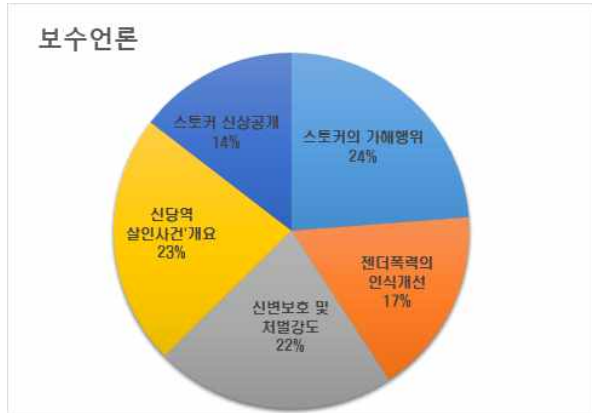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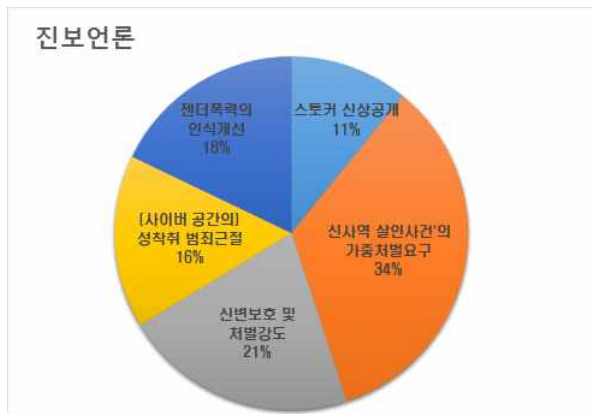


그림 1. 토픽-단어 2-모드 네트워크 시각화(보수언론)
Figure 1. Two Mode Analysis by Topic Group (conservative press).

진보언론은 Topic 1의 키워드로 '대중매체', 'SNS', '영상물', '신상공개', '피로움'이 등장하였다. 이는 보수 언론의 Topic5와 유사한 키워드로 토픽 명을 '스토커 신상공개'로 명명한다. Topic 2의 키워드는 '페미사이드', '범죄행위', '지하철', '가중처벌', '배신감' 등이 도출되어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범죄행위가 최초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살인까지 계획된 범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양형 기준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로 명명하였다. Topic 3의 키워드는 '친밀한 관계', '신체적 폭력', '가이드라인', '가정폭력', '신고시스템' 등이 등장하였다. 이는 보수언론의 Topic 3과 유사한 키워드로 토픽 명을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로 명명하였다. Topic 4의 키워드는 '맞춤지원', '성 착취', '처벌법', '사회적 약자', '범죄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사이버 공간의)성 착취 범죄근절'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유형이 확장되어 성 착취 피해로 이어져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Topic 5의 키워드는 '여성가족부', '제도개선', '성폭력', '성평등', '안간힘' 등으로 나타나 보수언론의 Topic2와 유사한 키워드로 '젠더폭력의 인식개선'로 명명하였다(Table 3, Figure 3). 진보언론의 Topic 1은 11%, Topic 2은 34%, Topic 3은 21%, Topic 4은 16%, Topic 5는 18%로, Topic 2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



(a) 보수언론



(b) 진보언론

그림 2. 언론기사 별 토픽비중의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topic weight in each news article

표 3. 진보언론의 토픽모델링 결과
 Table 3. Results of topic modeling of the progressive press

NO	Topic group	1stKey word	2nd Keyword	3rdKey word	4thKey word	5thKey word
1	스토커 신상공개	대중매체	SNS	영상물	신상공개	괴로움
2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페미사이드	범죄행위	지하철	가중처벌	배신감
3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친밀한 관계	신체적 폭력	가이드라인	가정폭력	신고시스템
4	(사이버 공간의)성착취 범죄 근절	맞춤지원	성착취	처벌법	사회적 약자	범죄행위
5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여성가족부	제도개선	성폭력	성평등	안간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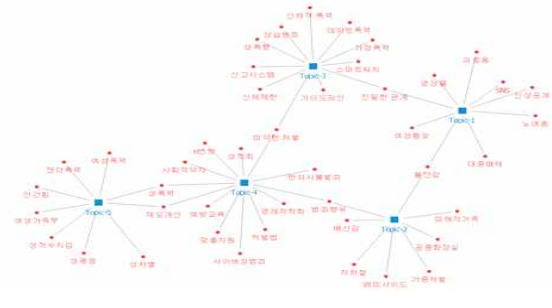


그림 3. 토픽-단어 2-모드 네트워크 시각화(진보언론)
 Figure 3. Two Mode Analysis by Topic Group(progressive press.)

V. 결론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토킹’을 주제로 다룬 보수언론기사 824건과 진보언론 기사 783건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언론기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전달하려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도출된 토픽 중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가 동일한 보도방향을 보였다. 젠더폭력의 인식개선에서 근본적인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이 구조적 차별이며 분배구조의 한계에서 성별 간 차이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인식이 있어 젠더폭력의 대안으로 사회안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였다[19]. 이를 위해 젠더평등과 인권과 관련된 내실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성차별적 문화와 편견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사회문제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들 수 있다.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에서 스토커처벌법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록, 스마트위치, 단계별 잠정조치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제공되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규정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기준이나 신변안전조치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2]. 또한 스토킹 행위와 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법률의 포괄범위를 더 확장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였다[5]. 따라서, 국가차원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는 구체적 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예방을 할 수 있으며 처벌규정도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커 신상공개는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 이익, 청소년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나 현재가 아닌 과거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면서 정보공개에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유사 범죄예방 및 추가범죄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가해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는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하였다[20]. 이는 잔혹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라도 신상공개에 판단기준을 하에서 최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신당역 살인사건’을 다루는 관점차이를 보면 보수언론은 스토커사건의 사건장소, 범행계획, 범행행적, 범행도구, 가해자의 성향 등 가해자 입장에 관한 보도성향을 보였다. 이는 보수언론은 독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가해자 중심의 사건흐름을 부각하였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언론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상황, 정서적 고통, 보복의 두려움 등을 다루고 있어 스토커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보수언론은 스토커의 가해행위 토픽주제에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범죄심리, 사이코패스 검사, 범죄동기, 살해방식을 자세하게 보도하였고 반사회적인 성향에 따른 짧은 재범기간과 심각한 범죄로 진화됨을 주장하였다[21]. 이는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미약한 처벌이 아닌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함을 암시하나 다소 선정적인 보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보언론의 (사이버공간의) 성 착취 범죄근절 토픽주제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왜곡된 성 관념이 거래되고 여성의 성적 도구화되는 조직적인 성 착취 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특히 사이버스토커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인 익명성, 확산성, 불특정 다수의 대상화, 시공간 무제약 등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로 이를 포함한 법제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 범죄예방차원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양성교육과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이버 윤리의무교육이 시급하며 스토커행위의 공간 확대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반

영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언론간의 이념에 따른 스토커 주제를 통해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보도성향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10~20년 언론기사의 자료 활성화가 필요 하겠다. 언론기사 이외에도 대중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한 SNS 게시물, 기사댓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 분석이나 경험에 반영된 인터뷰 형식의 연구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스토커 행위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더 나아가 국가적 피해 양상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였고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구조적 성별차이, 피해자 책임전가 문제, 중대 범죄에 관한 경각심 등을 공통적인 주제로 도출되었으나 보수언론에서는 가해자의 심리상태, 범행계획, 과거 행적 등 상세하게 보도하여 대중의 알 권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진보언론은 스토커 범죄의 피해양상, 피해범위, 피해대상자, 대응방식 등 피해자 보호측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가해자의 미약한 처벌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두 언론간의 보도방향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도출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1] M.K. Han, “Stalking in Court: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n the Types of Stalking Behaviors and Punishment”, *Wonkwang Law Review*, Vol. 37, No. 1, pp. 65-92, 2021. doi.org/10.22397/wlri.2021.37.1.65
- [2] S.H. Han, “A Study on Protection Plans of Victims of Stalking Crime”,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Vol. 23, No. 1, pp.165-184, 2023. doi.org/10.17926/kaolp.2023.23.1.1.165
- [3] S.J. Lee, “Comparison of Psychological Definitions between Gaslighting and Stalking”,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 21, No .2, pp. 211-236, 2022. doi.org/10.38084/2022.21.2.9
- [4] M.Y. Cho and J.I. Kim, “The Effects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ambivalent sexism on the acceptance of stalking myth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1, No. 1, pp. 109-134, 2016. doi.org/10.18205/kpa.2016.21.1.006

- [5] H.I. Sim and S.H.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Victims of Fraud Crim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KCPR)*, Vol. 19, No. 1, pp. 107-126, 2023. doi.org/10.25277/KCPR.2023.19.1.107
- [6] Y.J. Shim and S.H. Lee, "Review and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Setting the Type of Action in Component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Victims, and the Application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KLAJ)*, Vol. 71, No. 2, pp. 59-86, 2022. doi.org/10.17007/klaj.2022.71.2.003
- [7] J.K. Kim, "Cyberstalking Behavior and Revisions for Punishment of Stalking",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46, No. 3, pp. 97-126, 2022. doi.org/10.22853/caujls.2022.46.3.97
- [8] H.J. Park, "Risk Factors of Online-stalking and The Need to Revise The Current Law",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Vol. 10, No. 4, 437-458, 2022. doi.org/10.30833/LTPR.2022.11.10.437
- [9] W.S. Lee,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 23, No. 4, pp. 205-235, 2022. doi.org/10.23894/kjcc.2022.23.4.008
- [10] S.S. Park, "A Study on Looking over Stalking Crime Countermeasur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4, No. 1, pp. 677-692, 2023. doi.org/10.22143/HSS21.14.1.48
- [11] R. Fowler,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UK & New York, NY: Routledge, 1991.
- [12] S.Y. Park and E.H. Park, "An analysis on period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for pub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1, pp. 155-180, 2019. doi.org/10.15409/riece.2019.21.1.8
- [13] J.H. Choi and D.S. Han, "The partisanship of media and the media intervention in political-power cre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ajor newspapers' editorial articles during the 13-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12 No. 2, pp. 534-571, 2012.
- [14] J.R. LEE, J.H. Jung, H.W. Yoo, Y.K. Lee, and J.I. Kim, "Big Data And Text Network Analy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Press. 2022.
- [15] S.S. Lee, "Network Analysis Methods Application and Limitation", Seoul: Cheongram, 2018.
- [16] S.E. Robertson, "The probability ranking principle in IR.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33, No. 4, pp. 294-304, 1977.
- [17] G. Salton and C. Buckley, "Term-weighting approaches in automatic text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24, No. 5, pp. 513-523, 1988.
- [18] T.L. Griffiths and M. Steyvers, "Finding scientific topics.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1, No. 2, pp. 5228-5235, 2004.
- [19] N.M. Kim and S.H. Cho, "Discourse on the Contextuality of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7, No. 3, pp. 21-39, 2020. doi.org/10.25023/kapsa.17.3.2020.8.021
- [20] I.Y. Lee, "A study on the crime of disclosing the facts of a suspect and issue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suspect's face",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Vol. 24, No. 1, pp. 537-568, 2023. doi.org/10.16960/jhlr.24.1.202302.537
- [21] J.Y. Jun,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stalking", *Yonsei Law Journal*, Vol. 40, pp. 89-136, 2022. doi.org/10.33606/YLA.40.4